

#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 만든다

### 정부, 지원 대책 발표... AI로 위기기업 조기 발굴·사업전환·구조개선·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성장 둔화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전환과 구조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정상화와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분석 결과 함께 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4년 8.8%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11만여 개사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만5천 개 기업이 성장 또는 재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 경보알림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6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 대상에 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AI는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해 기업별 위기 수준을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을 안내하고 재도약 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이후 종합진단을 통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경영개선 컨설팅과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재무조정 등

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 위기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상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경영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회생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법원의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인 '프리 ARS(Pre-ARS)' 활용을 지원해 채무조정과 회생계획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생 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성장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사업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 외에 5급 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을 우선 지원 분야에 포함하고, 기술과 인력, 금융, 판로를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사업전환 성과를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비밀스톤'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성장 촉진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을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연결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분사와 조인트벤처, 인수 합병(M&A)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외국 인력(E-7)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사업전환 성과를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비밀스톤'

## 전북 직업계고·청년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

### 전북중기청, 교육청·고용노동부·원광대와 본격 운영

전북지역 직업계고 학생과 청년 구직자들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기업 현장을 체험하고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2026 전북 직업계고·청년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가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2026 전북 직업

계고·청년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과 청년 구직자들이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과 직무를 이해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일정은 7월 9일 도내 직업계고 학생 40여 명이 지역 중소기업 3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11월까지 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0개 기업과 학생·청년 200여 명이 기업탐방과 토크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3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업을 소개하고 구직자와의 맞춤형 매칭, 1차 면접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중기청은 올해 초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에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실전면접 교육을 실시한 뒤 참여 기업과 사전 매칭을 진행해 취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북 미래 모빌리티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사업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행사 장소 제공 등 운영 전반을 뒷받침한다.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면접이 이뤄지는 토크콘서트 운영을 총괄해 취업 연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국민연금공단, 전북 혁신도시 KB금융타운 개소식 참석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에 문을 연 KB금융타운 개소식에 참석하며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및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8일 오전 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린 '전북 KB금융타운'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북 KB금융타운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자산운용 등 KB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거점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

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금융타운 개소를 축하했다.

공단은 이번 KB금융타운 개소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약 1,600조 원 규모 기금운용 역량과 민간 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연계되면서 전북 혁신도시가 자산운용 중심의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바이오 스타트업, 수도권 투자자 투자유치 기회 확대

전북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수도권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선보이며 투자유치와 성장 발판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바이오 스타트업 넥스트 피치 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경진원이 지원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투자유치 특화 프로그램으로,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수도권 투자



기관 간 접점을 넓히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참가기업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모두 14개 기업이 핵심 기술과 사업모델, 성장 전략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7일 전주 풍남문광장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팜스테이마을 협의회와 함께 '팜스테이마을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여름 휴가는 팜스테이마을에서"

### 전북농협, 풍남문광장·한옥마을서 농촌관광 홍보 나서

전북농협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 홍보에 나섰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7일 전주 풍남문광장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북팜스테이마을 협의회(회장 최광식)와 함께 '팜스테이마을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의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마을을 알리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협 임직원과 전북팜스테이마을 위원장, 사무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들은 팜스테이마을 위치가 표시된 부채와 로고가 새겨진 키캡 키링, 생수 등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며 전북의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휴양 정보를 홍보했다.

또한 풍남문광장에서 경기전까지 거리 홍보를 펼치며 전북팜스테이마을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농촌관광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 적극 홍보했다. 전북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레전드 50+' 지원기업 성장성과 점검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장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기업 맞춤형 후속 지원 강화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전용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장 성과를 거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의 성과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1.0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북의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시장 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 지원기업 가운데 매출 증가와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원사업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더

욱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성과기업인 두이엔씨(주)는 최근 3년간 매출이 10억원에서 29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로봇 기반 버(Bur) 제거 자동화 장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기술을 개발하며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높였고, 해외 전시회 참가와 미국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했다.

(주)트레시스토 최근 3년간 매출이 6억6천만원에서 34억7천만원으로 약 5배 성장했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활용해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품 실증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명보기업(주)은 상용차 시장 개발을 통해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스펠스엠텍은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개발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다. 에스와 이코리아 역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속 추진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